

## 떠오르는 주제와 방향



10 월 6 일 목요일의 총회 작업은 어제의 모든 단위체 보고서의 후속 작업이었습니다. 총회 위원들은 그룹으로 만나 보고에서 떠오르는 공동의 주제를 표면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녁에는 작성/비전 그룹이 초기 총회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분석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2 년 총회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은 45 명의 총회 대표 위원중 21 명(거의 절반)이 총회에 처음 참석하는 대표 위원이라는 점입니다. 총회 무 경험 대표위원들은 - 미셸 마리 켈리 수녀(미국 사든), 메리 아누실라 살소 수녀(인도 파트나), 마리 필리파 수녀(한국 인천) - 지금까지의 총회 체험을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10 개국 위원들로 이루어진 총회의 국제성을 체험하는 이 기회가 축복이라 여기며 이 체험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수녀님들을 만나고, 소식지에서 읽어보기만 했던 그들의 나라와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들 들으니 새로운 이해와 에너지가 생긴다”고 미셸 수녀가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총회 위원들의 나눔입니다.



메리 마가렛 음부바 수녀(나이로비의 동아프리카대리구) - “수녀님들 사이에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 자명하다. 우리가 많은 다른 문화적 현실안에서 사도직을 행하면서도 유사함을 가지고 공동의 사명을 나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수녀는 동아프리카 관구 참사회에 속해있으며 41 명의 동아프리카 유기서원자 지도수녀이기도 합니다.

방갈로르 관구(인도) 관구장인 메리 체타나 수녀는 이토록 많은 수녀들을 만나는 기회에 대해 무척 감사했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 삶의 체험을 나누는 이 기회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는 같은 정신을 나누면서 다양성안에서 참으로 풍요롭다.”

